

'삼삼오오 무주관광 100선' 고른다

군, 청정이미지 부각 차별화된 숨은 관광지 발굴 나서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연내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반딧불이가 살아있는 청정 무주군이 숨은 관광지 발굴을 위한 탐금질에 들어갔다. 무주군은 비대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주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차별화된 숨은 관광지를 선정하기 위해 3355(삼삼오오) 무주관광 100선을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잘 알려지지 않은 비대면 관광지 지, 그리고 무주만의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군은 테마별 무주관광 100선 후보지를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연내까지 테마별 무주관광 100선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테마별 관광지는 걷고 싶은길, 연인과 함께 드라이브, 엄마아빠와 함께 1박 2일 등 무주만의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을 발굴하기로 했다. 부군수를 비롯한 행정복지국장, 관광진흥과장 등 공무원 3인과 관광 관련단체 인사 2명

등 모두 5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 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최근 소규모 여행이 일상화 되면서 당일치기 혹은 단기여행, 단체관광 보다는 체험 위주의 관광환경이 변하고 있음을 감안해 무주다운 적합한 숨은 관광코스를 적극 발굴해 관광객들이 무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의 경우 무주구천동과 머루어인동굴 등 익히 알려진 관광지 외에도 숨어 있는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면서 "가족 및 소규모 단체 등 삼삼오오 모여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숨은 관광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의 경우 구천동어사길을 비롯해 태권명상숲길과 금강벼룻길 등 걷고 싶은 길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제풍문과 눈꽃마중설천봉 등 사진 찍기 좋은 곳이 포진돼 있어 숨겨진 관광자원이 무궁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비대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주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차별화된 숨은 관광지를 선정하기 위해 3355(삼삼오오) 무주관광 100선을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구천동33경18경 청류동.

마이산의 가을 감성 고원의 향수 담아

한국문인협 진안지부
'마이산 가을편지' 시화전

(사)한국문인협회 진안지부(지부장 이병율)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 진안 문화의 집에서 '2020 마이산 가을편지'를 주제로 시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마이산 가을편지 시화전은 진안 문인협회 회원들이 마이산의 가을감성과 진안의 향수를 담은 총 45개 작품을 군민들과 공유하며 코로나 19로 단절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한다. 시화전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철저하게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계획이다. (사)한국문인협회 진안지부는 1992년 결성되어 7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진안 홍삼축제와 연계하여 시화전과 백일장대회, 시낭송회를 개최하여 진안의 문화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병율 지부장은 "이번 시화전을 통해 회원 및 함께한 군민들 모두가 심적 위안을 얻고 정신적 풍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눈과 귀 즐겁게' ... 창작소리꾼들이 들려주는 민요

국립민속국악원 풍류마루
'절대가인', 24일 무대에 올라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4일(토) 오후 3시 예원당에서 풍류마루 10월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판소리, 가야금병창, 경기민요 소리꾼들로 구성된 창작소리그룹 '절대가인'이 출연해 남도민요, 경기민요, 서도민요, 제주민요를 현대적으로 재 해석한 새로운 무대를 통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절대가인'은 2011년 국악방송이 주최한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한 공연 및 앨범 발매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공연은 남도 뱃노래와 경기 자진뱃노



창작소리그룹 '절대가인'.

래를 엮은 어기여차 배 띄우리와 서도지역의 풍구소리를 색다르게 편곡한 풍구, 각

지방의 대표적인 아리랑을 엮은 아리랑연곡 등으로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공연과 더불어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도록 '얼씨구, 좋다'와 같은 추임새를 함께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다. 관람은 사전예약제(선착순 150명)로, 예약은 전화(063-620-2324)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며, 공연을 직관하지 못한 사례를 오는 31일 국립민속국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새로 시작하는 문화예술후원 '예술로 플렉스'

전주문화재단, 후원문화조성회의

(재)전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후원 답론을 함께 이끌어갈 전문위원 7인으로 구성된 후원문화조성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예술로 플렉스'는 전주문화재단이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예술후원사업이다. 재단은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후원자 발굴 및 유치, 예우 등 후원 매개활동 및 사업을 통해 전주형 예술모금 및 후원문화의 마중물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올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친 후원문화조성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의 문화예술후원 환경을 조성하고 예우 욕구를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 문화예술후원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모금교육, 지역의 문화예술후원의 인식을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 그리고 문화예술애호가를 위한 본격적인 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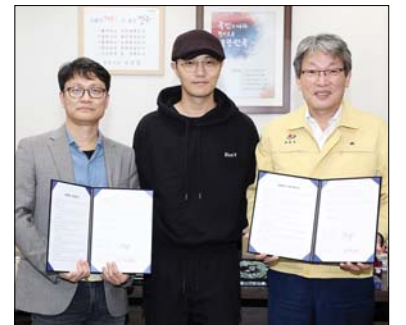


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펼친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과 기업 및 시민의 만남의 장을 넓히고 우리지역에 맞는 후원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의 문화예술후원문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문화진흥팀(063-083-9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영화 마케팅 통한 관광객 유치

정읍시,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제작사 파인스토리와 협약
구절초 테마공원 · 내장산 · 쌍화차 거리 등에서 작품 촬영

정읍시가 영화와 드라마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도시 이미지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한국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의 제작·배급사인 (주)파인스토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정읍에서 촬영 예정인 영화로,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주연을 맡은 영화배우 진구, (주)파인스토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영화는 전체 배경지 중 80% 이상이 정읍의 주요 관광지인 구절초 테마공원과 내장산, 쌍화차 거리, 정우면 하우스 수박 농가, 산외면 담 부회장 등에서 촬영된다. 특히, 정읍 특산물인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이 영화의 중요한 매개체로 나오면서 코로나19로 정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영상산업 홍보와 촬영지 지원 등 영화 촬영에 적극 협조하고, 영화사는 정읍을 홍보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번 영화는 평생 외톨이로 살아온 한 거친 사내와 고아가 된 시청각장애인인 한집살이를 하게 되면서 겪는 삶의 변화를 다룬 영화다. 유별난 결박증을 가진 사내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소녀가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그려낸 이야기다. '바다'와 '태양의 후예' 등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진정성 있는 연기를 보여준 진구와 '악의 꽃', '황금 정원'에서 천재성을 보여준



아역배우 정서연이 주연으로 나선다. 또 칸느영화제와 아카데미영화제 작품상 수상작인 '기생충'의 주인공 정혜진과 '공공의 적', '블랙머니' 등 출연작마다 중후한 안경감을 선사해 온 베테랑 배우 강신일이 출연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최근 한 광고에서 현실감 넘치는 부부생활을 능청스러운 연기로 표현하며 단숨에 차세대 기대주로 떠오른 신예 박예니와 오디션을 통해 놀라운 순발력과 열정을 보여준 신인배우 김태훈이 극의 신선미와 재미를 더한다.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작·지원하는 이번 영화는 복지정책의 시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제작사는 전망하고 있다.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지난 15일부터 정읍에서 촬영이 시작됐으며, 2021년 5월 개봉할 예정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우리 농축산물로 농촌행복도, 국민행복도

슬리고! 농민고!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하면 365일 더 건강하고 즐거워집니다
100% 국내자본 농협이 농촌도, 국민도, 대한민국 경제도
더욱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2020년
우리 농축산물로
즐거움을 여세요!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지부장 이익은
오수관촌농협 조합장 정철석 임 실 축 협 조합장 한득수
임 실 농 협 조합장 최동선 임실치즈농협 조합장 실동섭